



산에 오르는 또 다른 이유... 제주 비경이 '한눈에' 화창한 날씨를 보인 19일 한라산 영실 등반로에서 바라 본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산방산과 바다가 선명하게 보인다. 강희만기자

오늘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 제시해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모든 요양기관서 시행

오늘(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날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만약 진료시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진료비를 모두 낸 뒤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병원 진료 때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등이다. 이밖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을 내원한 환자는 주민등록번호 등만 기입해 제시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도 된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쿼알코드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마저 없다면 건강보험 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 전액을 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후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상민기자

함덕 갯자왓 계획관리지역 변경 '신중'

도의회 '2030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
"갯자왓 용도 변경시 지하수 오염될 가능성 높아"
봉개동 용도변경도 제외 주문... "타당성 떨어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시의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자칫 지하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의견제시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의사항

에 대해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역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뒤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제주시가 공개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는 함덕리 299-4번지 일대 91만8909㎡ 규모의 함덕 갯자왓 지대를 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경우 아스콘·레미콘 공장 등이 들어 설 수 있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도의회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이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주시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봉개동 약 15만㎡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굵직한 시선을 보였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의견제시를 통해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협약을 근거로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져 이번 재정비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및 행정구역 등에 따라 나눠진 용도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용도지역 등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협약 당시 봉개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협약을 맺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면서도 "향후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곳 모두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이날 심사에서는 환경오염·훼손 우려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됐다. 이태윤기자 lt9456@ihalla.com

한라산 1100고지 화장실, 이번 겨울엔? 도세계유산본부,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스템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1100고지 화장실에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는 예산 15억원이 투입됐다. 1100고지 화장실은 겨울 추위에 송수관이 얼어붙거나 갈수기 물 부족으로 사용 중단이 잦았던 곳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결빙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해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는 그 대안으로 이동식 화장실 2동을 운영했지만, 탐방객 증가로 인해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설치된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스템은 오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하는 친환경 오수처리 방식이다. 하루에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2017년부터 한라산 윗세오름, 진달래밭, 속밭, 삼각봉, 탐라계곡, 평계, 어리목 등 7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바다 불청객' 갯생이모자반 또 제주로... 4면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

May 29(Wed) - 31(Fri) | ICC Jeju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협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